



2009년 10월17일 KIA와 SK의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1만3천400석이 꽉 찬 무등경기장야구장. 2년 연속 500만 관중 동원 성공 열기를 몰아 프로야구가 올 시즌 650만 관중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8일 PGA 투어 혼다클래식 최종라운드 18번홀에서 앤서니 김이 퍼팅라인을 살피고 있다. 앤서니 김은 이 대회에서 8언더파로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부활 신호탄

PGA 투어 혼다클래식 준우승... 위창수 '톱 10' 진입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카골프)이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앤서니 김은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가든스 PGA내셔널 리조트 캠퍼인 코스(파70.7천158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혼다클래식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앤서니 김은 우승자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13언더파 267타)에 5타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앤서니 김과 함께 유망한 20대 선수로 꼽히는 비에가스는 2008년 2승을 포함해 통산 세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8년 2승을 올린 뒤 지난해를 우승없이 보냈던 앤서니 김은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표를 제출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준우

승을 차지했지만 우승자 비에가스를 따라잡을 기회를 놓쳐 일방적인 완패를 당한 것은 아쉬웠다.

비에가스에 6타 뒤진 공동 6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앤서니 김은 전반에 2타를 줄인 뒤 13번홀과 14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추격을 시작했다. 이 사이 비에가스는 11번홀과 12번홀(이상 파4)에서 1타씩을 잃어 앤서니 김과 격차는 4타로 좁혀졌다.

비에가스는 15번홀(파3)에서도 보기를 적어냈지만 앤서니 김은 17번홀(파3)에서 티샷을 범커에 빠뜨린 뒤 파로 막아내지 못해 타수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합계 3언더파 277타로 8위에 올라 올 시즌 처음으로 톱 10 진입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무등 경기장 올한 62만명 채운다

KIA “홍행몰이 다시 한번”... 작년보다 4만명 늘려

KBO 650만명 도전...출범 29년만에 1억 관중 자신

‘스포츠의 해’ 2010년 한국프로야구가 650만 관중유지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각 구단의 올 시즌 관중 유치 목표를 취합해 발표했다.

8개 구단은 올 시즌 655만3천100명(평균 1만2천318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을 쓴 지난해 592만 5천285명(평균 1만 1천138명)보다 62만 7천815명이 증가할 수 있다.

2009 챔피언 KIA는 지난해 58만2천5명을 넘어서 62만3천100명의 관중을 유치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수치다.

KIA는 2009시즌 1위 행진 속에 21번의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등 경기당 평균 8천818명의 관중을 동원했었다. 또 67경기의 원정 경기에 총 102만4천219명을 불러들이며 8개 구단 최고의 원정경기 동원관중력으로 프로야구 흥행 돌풍의 주역이 됐다.

KIA와 함께 2009프로야구 흥행관도를 주도했던 롯데는 올 시즌 11만 9천982명 늘어난 150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시즌 105만 3천966명을 끌어 모았던 두산 베어스

도 9만 6천34명 늘어난 115만 명의 관중 유치를 선언했다.

새로운 사령탑을 앞세워 인기구단의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 LG도 100만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가장 적은 32만9천715명을 동원하는데 그쳤던 넥센도 36.5% 상향된 수치를 내세워 45만명을 목표로 세웠다. 역시 새로운 사령탑의 지휘아래 ‘탈꼴찌’를 노리는 한화도 14.5%(5만 4천411명) 늘어난 43만 관중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청소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야구로 집중했던 눈길이 외부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프로야구는 새로운 용병, 군제대 선수들의 복귀, 강도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순위싸움을 예고하며 650만 관중에 도전한다.

6일 개막한 시범경기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관중이 몰리면서 올 시즌도 변함없는 프로야구 열풍 조짐이 보이고 있어 650만 돌파 전망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시즌 프로야구 총 누적관중은 9천748만1천392명으로 올 시즌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29년만에 누적관중 1억 관중 고지도 밝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 여신’ 김연아

내달 서울서 아이스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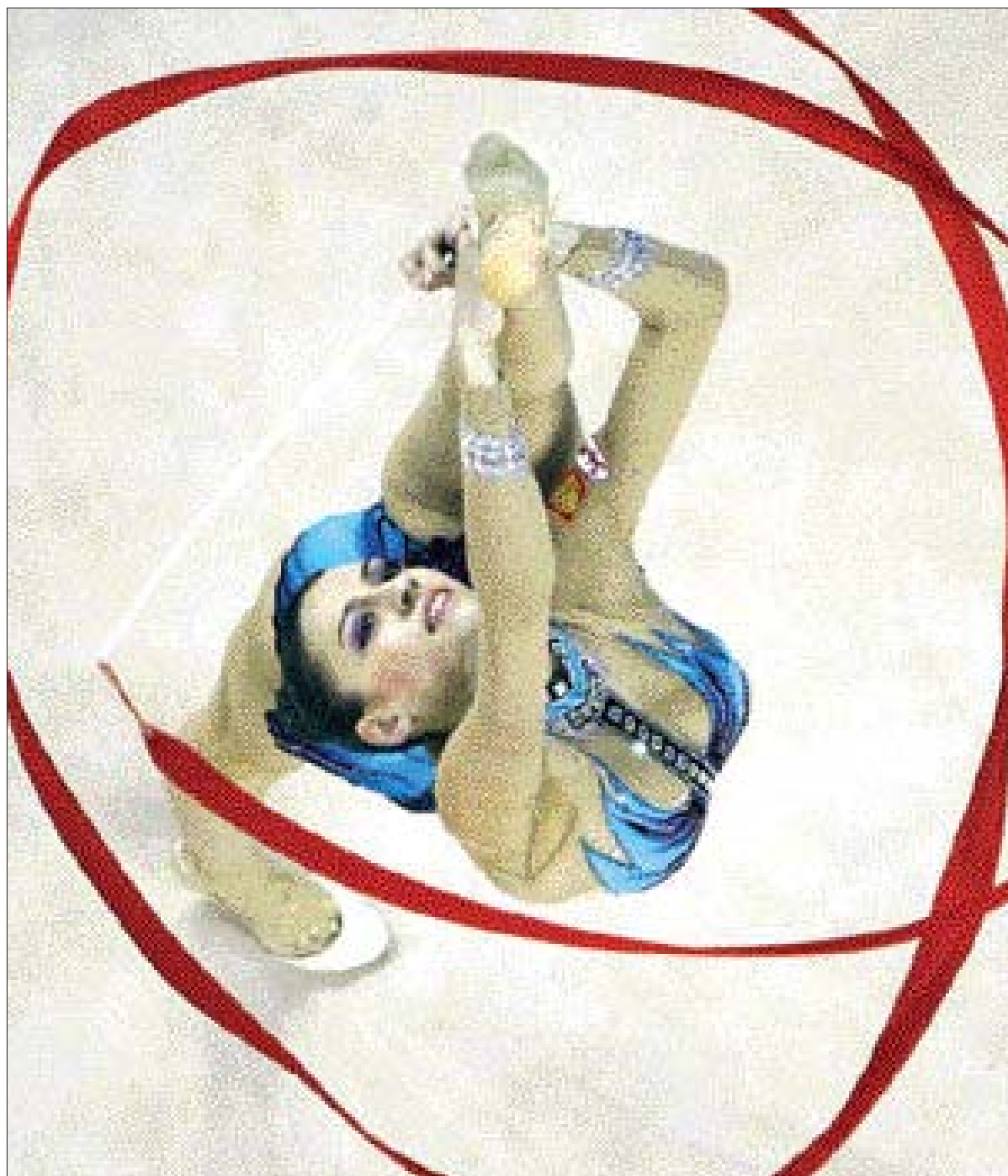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0·고려대)가 꽃피는 봄을 맞아 국내 팬들에게 ‘금빛 연기’를 선사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8일 “김연아와 세계 정상급 실력의 피겨 선수들이 출연하는 ‘KCC 스퀘어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이 4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아이스쇼 멤버는 김연아와 함께 최고의 현역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8월 국내 아이스쇼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셰린본(캐나다)과 일리야 쿨릭(러시아) 등 ‘백전노장’ 선수들도 참가할 전망이다.

IB스포츠는 “페스타 온 아이스의 콘셉트를 ‘미션 임파서블’로 정했다. 피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연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인 ‘007 본드걸’에 맞춘 영화같은 최첨단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스쇼 입장권은 오는 15일부터 판매되며 가격과 판매처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리듬에 맞춰

러시아의 예브게니야 카나예바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리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8타 이상 치면 ‘컷 오프’

KLPGA 새 규정 마련

한·일 대항전 대표

상금 순서대로 선발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에서 평균 88타 이상 치면 다음 라운드에 나가지 못한다.

KLPGA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정규투어나 드림투어(2부투어), 점프투어(3부투어)에서 매라운드 평균 88타 이상 기록한 선수를 컷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각종 테스트와 시드전에서는 매라운드 평균 90타 이상 치면 역시 중간 탈락한다. 이 규정은 컷오프가 없는 대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정규투어나 2, 3부 투어에 참가한 선수가 1라운드에서 88타를 치면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1라운드에서 86타를 적어낸 선수가 2라운드에 89타를 치는 경우 평균 87.5타가 돼 탈락하지 않지만 90타를 치면 평균

88타가 돼 떨어진다.

KLPGA는 또 외국 투어에서 뛰는 선수에게 KLPGA 정회원 자격을 주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랭킹 50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랭킹 30위,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상금랭킹 20위 이내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한 선수로 한국 국적이 있거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국적자에게만 KLPGA 정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한국 국적자 또는 한국계 선수는 이들 3개 외국 투어에서 3년간 풀시드권을 유지하면 KLPGA 회원 자격을 얻었다.

아울러 세계 정상급 외국 선수들도 KLPGA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톨렉스 월드랭킹 1~20위 선수에게는 KLPGA 선수권대회 참가를 허용기로 했다.

이밖에 한일국가대항전 대표팀을 상금 순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상금이 많은 순서대로 LPGA 투어에서 5명, KLPGA 투어에서 4명, JLPGA 투어에서 3명씩 선발하고 스폰서 초청 1명 등 총 13명의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다. /연합뉴스

‘지존’ 신지애 골프인생·가족 이야기 책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의 골프 인생과 가족이야기를 아버지 신제섭(50)씨가 책으로 펴냈다.

신제섭씨는 또 이 책에서 골프 선수를 자식으로 둔 학부모를 위한 조언, 코스 공략법,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등도 소개했다. /연합뉴스

세계정상에 서기까지 훈련 과정과 에피소드, 가족 이야기 등을 담았다.

신제섭씨는 또 이 책에서 골프 선수를 자식으로 둔 학부모를 위한 조언, 코스 공략법,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등도 소개했다. /연합뉴스